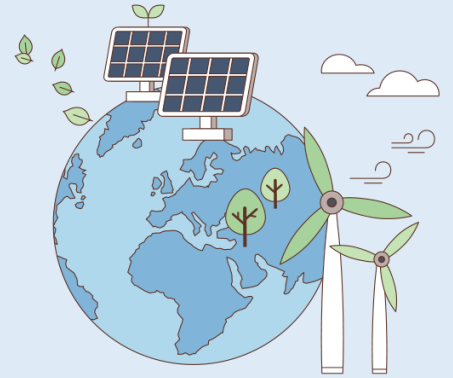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기후변화로 10년 안에 옥수수 생산 14% 줄고, 밀 17% 증가” *한겨레*
- 현대제철, 세계 최대 광산업체 'Vale'와 탄소 저감 방안 모색 *더팩트*
- 홍남기 "기후 대응 지원 대폭 확대...탄소인지예산제 도입" *한국경제*
- 한국에너지공단-SK E&S, 탄소 중립·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맞손 *뉴스1*
- 포스코, 철강업계 최초 'LNG 트랙터' 도입...친환경 물류 전환 *아이뉴스24*
- LG이노텍, 폐기물 100% 재활용...구미사업장 '자원순환 인증' *매일경제*
- 일진하이솔루스, BMW와 '압축 수소 저장시스템' 개발한다 *노컷뉴스*
- IMM인베스트먼트, 중동서 스마트팜 투자 *뉴스1*
- "메탄 30% 감축" 105개국 동의...탄소중립 시점 합의는 낙관 못해 *한겨레*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아프리카TV 'NFT 마켓' 연다 *파이낸셜뉴스*
- SKC, 英 넥시온에 3300만달러 투자...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 *뉴스1*
- SK 광폭행보...미래 신사업에 매년 1조투자 *매일경제*
- 한달 이자만 50억...'상속세 때문에' 삼성家 1000억 또 빌렸다 *머니투데이*
- GC녹십자랩셀-GC녹십자셀 통합한 '지씨셀' 출범 *서울경제*
- 달올린 애경케미칼...“화학 3社 시너지로 2030년 매출 4조” *파이낸셜뉴스*
- 마켓컬리, 기업가치 3.5조 겨냥 또 프리IPO *서울경제*
- '리딩금융 불꽃경쟁'...신한금융, 카디프손보 인수로 탈환 노린다 *뉴스1*
- 포스코인터-동남아 최대 석유회사 말레이 해상광구 생산물분배계약 *파이낸셜뉴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89분 먹통' KT, 개인 1000원 일괄보상...소비자들 '미흡하다' *이데일리*
- 11월부터 국제선 운항 확대, '위드 코로나' 맞춰 하늘길 열려 *뉴스1*
- 캐스퍼 온라인 판매도 재 뿌리더니...현대차 노조 또 집안싸움 *한국경제*
- SKB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 고수...진정성 의문" *뉴스1*
- 요소수 '쇼크'...온라인 배송 멈추고 매대 물건 사라진다 *한국경제*
-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찾아가세요"...'내보험 찾아줌' 개편 *이데일리*
- "전국서 연간 2억개 아긴다"...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매장' *디지털타임스*
- SKB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 고수...진정성 의문" *뉴스1*
- 30대 그룹이 임원으로 모시는 외부인재 순위는 *매일경제*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ESG 공시 '단일 국제기준' 제정 공식화...IFRS재단, ISSB 설립 발표 *NTN*
- 사학연금 이어 공무원연금도 ESG경영위원회 설치 *더벨*
- 연기금-공제회 CIO 새 얼굴들, '해외 대체투자' 늘린다 *뉴스핌*
- 석탄발전 종료 시점도 못 정하고...'온실가스 톱2' 美中 "네 탓"만 *서울경제*
- '친환경' 투자가 돈 되네...ESG가 ETF 판 흔든다 *매일경제*
- 신복위, 디지털 혁신으로 ESG 부문 2550억 성과 *파이낸셜뉴스*
- 금융사 ESG 열풍의 그림자...지배구조(G) 개선, 어디로 갔나 *아시아경제*
- 국내 탄소배출권 '금융화'의 길로 *한겨레*
- '한전 투자 철회' 네덜란드 연기금 "변화이지 보이면 결정 재고" *매일경제*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이사회 다양성 추구하고 금융회사 시사점

- 보험연구원 21.11.01

G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사회 다양성을 위해 여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ESG에서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증가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서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 참여의 증가는 기존 남성 위주의 네트워킹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이사회 효율적인 경영감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20년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4.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5.6%와 비교하여 5배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에서 이사회 여성 이사 참여율은 약 4.1% 수준으로 사외이사 중 5.7%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사내이사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여성 참여율 증가가 법적 구속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줌
-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 비중 증가는 이사회에 다양한 관점 및 경험의 제공을 가능케 하여 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법적인 규정 도입을 통한 여성의 이사회 참여 확대는 기업 성과와 가치에 중립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대가 단순히 여성 이사의 수적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질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융회사들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특정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여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동시에 사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여성 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1.02

G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2016.12.16.) 이후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15일 기준 129개 기관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
-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체 129개 참여 기관 중 PEF,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참여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국내 자본시장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가 도입된 이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주주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전통적인 주주권 행사인 의결권 행사와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코드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수행한 주주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주주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를 분석함
- KSC에 참여한 129개 기관(2021.6.15.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주주활동 공시 현황을 직접 살펴본 결과, 실제 주주활동 이행 내역을 공시한 기관은 19개이며 이 중 1년 이하로 주주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16개임
- 주제별 주주활동 공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주로 주주 환원 정책에 편중되어 있음
- 국민연금은 비공개적인 주주활동만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는 비공개적인 방법과 공개적인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등 연기금과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는 주주활동 이행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KSC 참여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주로 주주환원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수행한 대상 기업(target firm)의 특성과 이들 기업의 배당지급 성향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적정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경우 RE/TE 비율(투자자본 대비 유보된 수익 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배당 증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주주활동 전후 이들 기업의 주당 배당금(DPS)과 배당지급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즉, 국내 기관투자자는 기업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주활동 타겟기업의 배당지급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2021 년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1.02

A

- 유가증권 상장사 및 대형 금융사 874사 중 110사에 ESG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68개에 그침 (2021년 6월 기준)
-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ESG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내용 중 43%가량은 변화한 경영 환경에 맞추어 ESG경영체계를 수립하거나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내역이 아닌, 이사회의 기존 업무를 ESG위원회에 이관한 것에 그침
- 즉 위원회 운영사항과 같이 절차적인 내역에 해당하거나, 이해상충 거래 심의나 법률상 반드시 이사회의 보고나 결의를 받아야 하는 내역으로서 ESG위원회 신설 전에도 이사회 내에서 논의되던 안건에 해당함
- ESG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안건은 위원장 선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등이었으며, 변화한 경영환경에 맞추어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내역은 전체 안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ESG위원회 안건의 상당수가 내부거래 심의 내지 법률이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보고사항으로 채워진 배경은 ESG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위원회(내부 거래위원회, 전략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를 ESG위원회로 변경하여 기존의 활동에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ESG 경영전략 논의를 통해 위원회가 ESG경영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회사는 110개사 중 40개사였으며, ESG위원회에서 구체적인 ESG 활동을 논의한 28개사 중 15개사는 청사진이 되는 ESG 전략 수립 없이 구체적인 활동을 논의함
- ESG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절반 이상은 결의가 아닌 보고 또는 논의의 형태로 부의되었는데, ESG 경영전략 수립 안건 54건 중 32건이 보고형태로 그쳐 이사회 중심 경영보다 경영진 내지는 실무진 중심의 경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ESG위원회가 전략 수립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ESG 관련 사항을 결의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ESG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 활동은 소극적인 이사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ESG가 수익창출과는 무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던 사고의 연장에 해당함
- ESG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ESG활동을 ESG경영 차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임

포스코건설 사례를 통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1.11.02

A

- 국내 탄소배출량(7억톤, '19년)의 22%를 건설부문이 유발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었음. 탄소배출량은 배출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로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인 Scope 1, 2가 약 3% 수준인데 반해, 자재의 제작, 운송,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가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 포트폴리오 및 Supply Chain 변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태계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목표로 '30년 30% 감축, '40년 60% 감축을 거쳐 '50년 Carbon Negative 달성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13년 송도에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건립한 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비주거시설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것을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건축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500만톤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에 발맞춰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Orsted)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정확한 물량 예측이 힘들고, 연간 공사물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의 상시 고용이 어려워 전문건설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완성공사 원가 요소별 구성추이를 보더라도 '19년 기준 협력사로 부터의 조달비율이 82.7%에 달함 (외주비 58.4%, 재료비 24.3%)
- 포스코건설은 ESG가 공급망에도 정착될 수 있는 구매체계를 수립하였음. 협력사의 등록, 평가, 입찰과정에서 가격, 품질, 납기 준수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비즈니스 윤리와 같은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크레더블'과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21년 하반기부터 협력사 등록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투자자들의 ESG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 기회도 확대되고 있음.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년 Sustainalytics의 인증을 받아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천억원 규모의 해외 ESG 채권을 발행하였고, '21년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1.4천 억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 특히 건설회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포트폴리오 강화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이고, 인권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 맞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함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과 달성 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1.11.03

S

- 2021년 6월에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을 증진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김
- 이에 따라 각국의 공급망 관리 의무 법률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관리 정보(기업 내부정책 수립 현황, 협력업체 실사 절차 및 시행 여부 등)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함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는 기업이 자사 공급망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 및 운영을 효율화할 수단임. 구매기업은 공급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료 투입, 에너지 소비, 유통 등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구매기업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협력업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OECD, UN 등의 국제기구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을 원칙(principle) 및 지침(guideline)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은 각국 정부의 법 제정과 기업의 내부정책 수립에 활용됨
- OECD의 기업실사 지침상 실사는 다음의 다섯 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이 권고됨: 1) 책임경영 체계 구축 2) 공급망 내의 위험 요인 식별 및 심각성 평가 3) 위험요인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4)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한 실사 5) 실사 결과 공개
- OECD는 또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산업인 광업, 의류 및 신발 산업,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가이드 발표함. 예를 들어 분쟁지역 광물 실사 지침은 분쟁지역/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구매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의 무장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금지함
- 미국, 유럽 등 외국에 비해 한국은 공급망 범위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루는 법률이 미비하여 기업들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업이 각자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을 숙지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국 공급망 정책 및 기업 동향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함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 전망과 시사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10.29

E

-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5G 서비스 보편화, 코로나19 언택트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화, 친환경 요소가 강화되는 추세임
-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성장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최근 2년간 2.5배 급증 ('17년 5만GB/s → '21년 12.5만GB/s)
- 데이터 처리·저장 수요 급증과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로 서버 10만대 이상을 갖춘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증가함
-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2016년 1,252개에서 2021년 1,851개로 최근 5년간 50% 가까이 증가. 국가별로는 미국(815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210개), 독일(180개) 순임
- 빅테크 입장에서는 핵심 인프라이자 코스트 센터인 데이터센터가 대형화될수록 운영비(OPEX)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선호
-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0.8%에 해당할 정도로 탄소 다(多)배출 업종으로 글로벌 IT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외부 냉기 활용,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 중임
-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2021년 1,851개에서 2025년 총 2,300여개로, 국내에서도 2025년까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5개를 포함하여 30여개가 늘어나 19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 그린 데이터센터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물에너지관리 업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태양광, 풍력 산업의 성장이 예상됨
- 금융 측면에서도 데이터센터의 대형화와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로 초기 설비투자(capex)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용이한 리츠(REITs) 시장이 조성됨
-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IT장비의 집체에서 친환경 부동산으로 변모함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 건설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는 그린 데이터센터 연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대출 수요 뿐 아니라 친환경 부동산인 데이터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와 리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 풍력발전의 새로운 도전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1.11.01

E

- 좁은 육지와 부족한 풍량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좁은 육지와 부족한 풍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풍력 발전의 한계가 존재.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문제 극복 가능함
-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해 오고 있는데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 시아 국가들의 도입이 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경우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본격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띈. 국가별 해상 풍력발전 점유율은 영국이 33%(9.7GW)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7.5GW) 26%, 중국(6.8GW) 24%, 덴마크(1.7GW) 6% 순임
- 한국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2019년 기준 124KW 수준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임. 세계 해상풍력 설비는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설비 점유율이 2019년 1%에서 2025년 11%, 2026년 16%로 늘어나며 해상풍력발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임
- [영국] 풍량이 많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해상풍력 최강국으로 성장함
- [덴마크] 글로벌 풍력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이상적 해상풍력단지 모델 구축
-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단숨에 세계 3위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높은 수준의 기술도 보유케 됨
- [일본] 도시바와 GE의 제휴를 통해 시장 본격 진출, 2040년까지 4.5GW로 해상풍력 용량 확대 예정임. 국내의 경우 남 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향후 정부의 지원을 통한 투자 기회 다수 창출 예상됨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는 달리 터빈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터빈 대형화 등의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루지고 있는데 기술 개발로 사업성도 빠르게 개선 중임
- 이에 국내 기업들 또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서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관련 시장의 높은 성장성 기대
- 더불어 대단위 해상풍력 관련 국가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금융권의 투자 기회가 다수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됨

EU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 발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1.02

S

- 2021년 7월 21일, EU는 지속가능금융 전략의 일환으로서 투자과정에서의 사회적 요인 고려를 위해 EU 사회분류체계 (Social Taxonomy, 이하 ST) 초안을 발표함
- 본 분류체계 안은 1)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요인, 2)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 3) 피해를 일으키는 활동을 고려하여 구성함
- 규제 내 ST는 환경 분류체계(Environmental Taxonomy, 이하 ET)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되었으며, 환경 분류체계와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4가지와 같음
- 1)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활동은 본질적으로 이롭지만, 사회 분류체계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 또는 의료 서비스 접근 성 향상과 같이 '추가적인' 사회적 이득을 고려해야 함
- 2) ET는 과학에 기초할 수 있지만 ST는 국제 인권장전(Bill of Human Rights)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 표준에 기초할 수 있음
- 3) ET는 경제 활동과 연계 가능한 반면, ST에서 조세 투명성이나 단체 교섭같은 일부 사회적 측면은 경제 활동이 아닌 '경제 실체와 연결되어야 함
- 4) 일부 사회 주제의 경우 의미 있는 양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ST는 국제 규범과 원칙에 및 시장 기반 표준을 고려하였으며, 1)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과 2) 수직적 차원 (Vertical dimension) 두 가지 구조로 분류됨
- 수평적 차원은 인권 존중 및 지원과 관련되며, 각 경제 주체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회피하고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 양질의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익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
- 수직적 차원은 적절한 생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여 인간의 기 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권리를 이행토록 해야 함: 물, 음식,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및 인터넷, 청정 에너지, 금융 포용성
-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 예로 깨끗한 식수 또는 의료에 대한 권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다루어짐
- 수평적 차원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존중과 보호를 개선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수직적 차원은 그러한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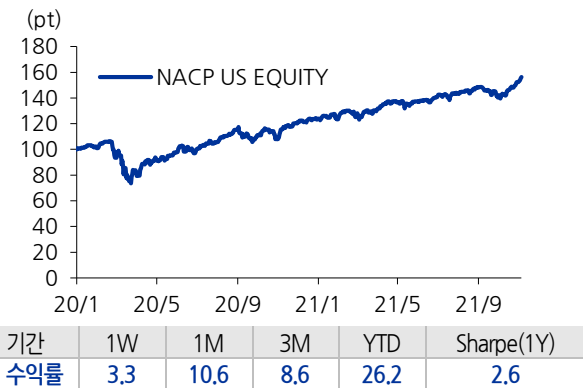
- Morningstar US Large-Mid Index 편입 기업을 대상으로 소수자 권리 신장 점수(Minority Empowerment) 산정
- 이사회 다양성, 차별 금지 정책, 인권 프로그램, 동일보수 체계 등 18개 항목 중 5개 이상의 점수가 존재해야 편입 될 수 있음
- 점수 상위 200개 종목 선정 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비중을 결정하되 개별 종목 비중 상한(최대 5%)를 두고 있음

ETF 개요

티커	NACP US EQUITY
상장일	2018-07-18
운용사명	Impact Shares
총보수율(%)	0.49
기초지수	Morningstar Minority Empowermen'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Float-Adjusted Cap
주당 가격(달러)	36.40
보유종목 수	195
시가총액(백만달러)	38.2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U.S.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5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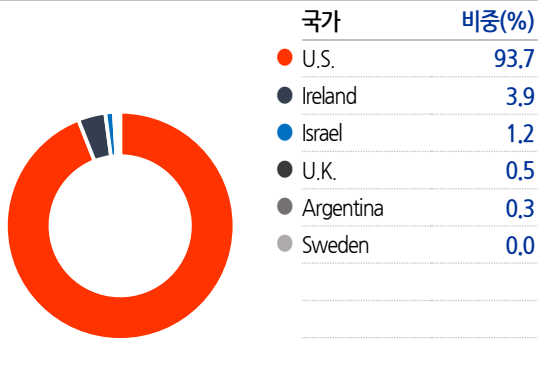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5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MSFT US	마이크로소프트	2,523,132	5.2
NVDA US	엔비디아	743,800	4.8
AAPL US	애플	2,481,960	4.7
TSLA US	테슬라	1,227,302	4.1
CRM US	세일즈포스닷컴	300,798	3.8
FB US	메타 플랫폼스	948,942	3.1
ACN US	액센츄어	242,336	2.9
INTC US	인텔	207,092	2.5
GOOGL US	알파벳	1,978,700	2.5
GOOG US	알파벳	1,978,700	2.3
합계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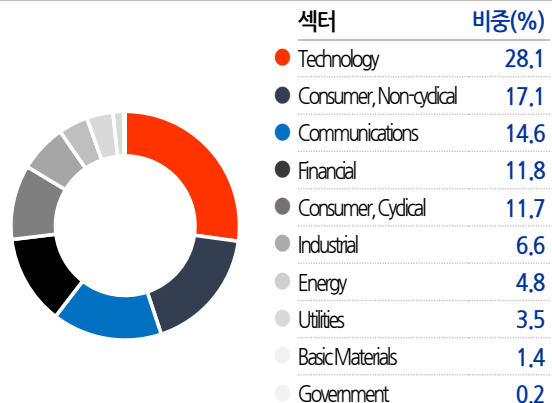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5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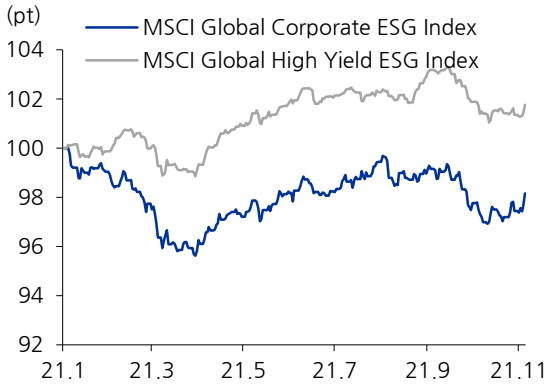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5일 기준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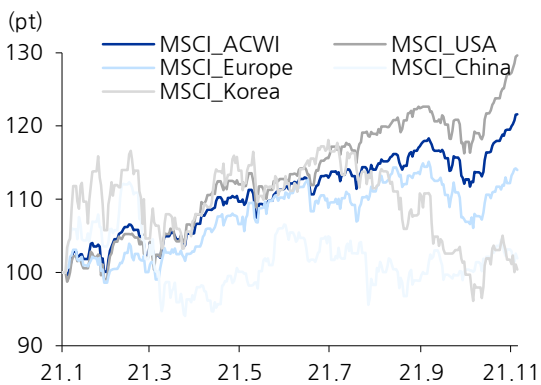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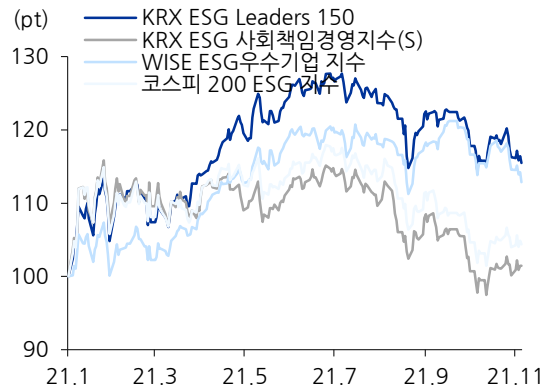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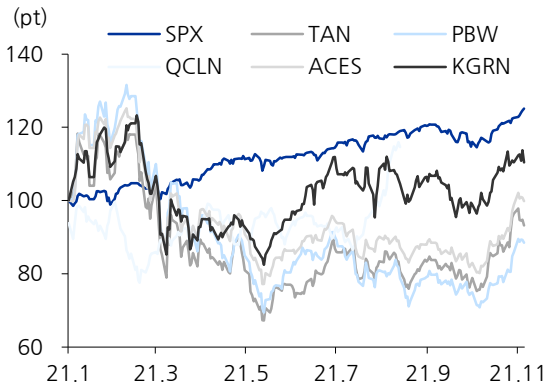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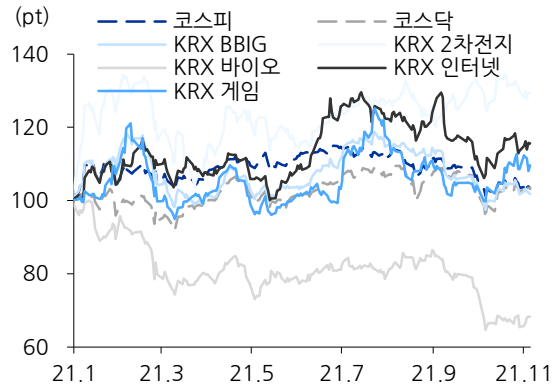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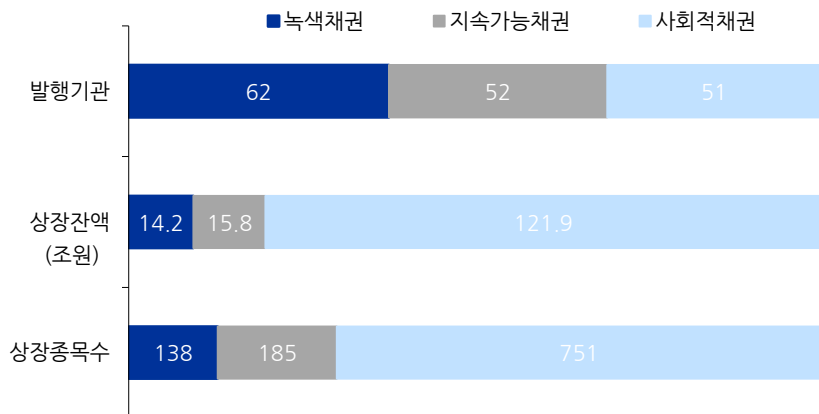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한국남부발전 63-1(녹)	2021/11/05	2.65500	60,000
녹색채권	한국남부발전 63-2(녹)	2021/11/05	2.59100	6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수력원자력 62-1(지)	2021/11/04	2.55100	10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수력원자력 62-2(지)	2021/11/04	2.60400	5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수력원자력 62-3(지)	2021/11/04	2.59000	9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5(사)	2021/11/04	2.21600	9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6(사)	2021/11/04	2.47000	13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7(사)	2021/11/04	2.48000	100,000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511 이 1.5 갑 1(변)(지)	2021/11/02	1.45000	100,000
녹색채권	산업금융채권 21 신복 300010071C(녹)	2021/11/02	2.75000	30,000
사회적채권	부산은행 2021-10 이(변)2A-(사)	2021/11/01	1.37000	10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